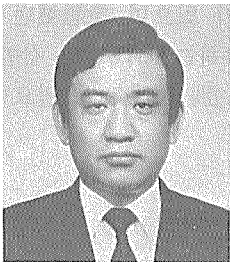


# 기업의 경영환경과 투자활성화



전 대 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91년의  
투자계획의 증가율은  
제조업기준으로 13.9%를  
 보이고 있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답하고 있으나 이 조사가 지난해에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걸프전  
 이후는 오히려 축소  
 방향으로 갈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1. 不確實한 國際環境

당국에서 뒤늦게 製造業主導의 成長을 이야  
 기하고 있지만 '91년의 現實的인 經營環境은  
 不確實性을 내포한 가운데 나쁜 方向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우선 그동안 戰爭이 날 것이다  
 안날 것이라는 豫測이 무성했던 걸프戰爭이 1  
 月 17日을 기해 熱戰으로 狀況이 바뀌었고 이  
 戰爭은 現在 戰費 등을 綜合해 볼때 3個月 20  
 日 以內에 끝날 것으로 보이나 그 自體가 아주  
 不透明한 것이기 때문에 戰爭期間의 豫測은 극  
 히 不確實한 狀態이다. 다행하게도 걸프戰이  
 일어난 후에 國際 原油價는 豫想과는 반대로  
 오히려 下落하고 있으며 美國 달러貨도 強勢로  
 가지 못하고 弱勢로 가고 있어 이같은 傾向이  
 지속된다면 크게 問題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中東油田의 파괴여부, 「이스라엘」의 參  
 戰 등의 問題가 어느 方向으로 갈지 모르기 때  
 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當初 豫상했던  
 原油價의 배럴당 50~70달러, 달러強勢의 사태  
 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다른 하나의 우려는 美國經濟의 沈滯期에  
 의 進入이다. 外信에 따르면 '90年 4/4分期부터  
 美國의 成長率이 침체되고 있으며 通常의으로  
 는 美國經濟의 下降平均所要個月數가 11個月이  
 기 때문에 '92年 1/4分期는 美國의 景氣가 回復  
 局面으로 돌아설 수 있으나 현재 美國의 金融  
 産業이 극히 不安全한 狀態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92年 下半期까지 不況이 持續될  
 우려도 없지 않다. 또한 그동안 國際金融·外  
 換市場은 美國主導로 이른바 G7會談을 통해서  
 協調體制를 維持해 왔으나 美國의 金利引下와  
 獨逸의 金利引上의 상반된 政策決定은 軍事的  
 으로 日本, 獨逸의 「걸프」戰 戰費의 共同負擔  
 과는 對照를 보이는 것으로 그 意味를 깊게 생  
 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기업으로서의 걸프전에 따른 다양한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蘇聯을 비롯한 東歐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蘇聯에 借款을 提供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기는 하나 蘇聯内部의 政情이 不透明한 方向의 資本의 中東戰과 蘇聯事態로 資本供與를 保守的으로 움추려 들고 있으며 東歐諸國은 蘇聯으로부터 싸게 導入하던 原油를 國際市勢의 硬化로 支拂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蹉跌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걸프戰의 발발로 各國의 民間消費가 必現的으로 萎縮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輸出增加가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걸프」戰이 早期에 終戰되었을 때 中東에 戰後復舊를 생각할 수 있으나 「쿠웨이트」 400億弗, 「이락」 600億弗의 戰後持需에 우리가 參與하는 데는 상당한 限界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美國主導의 걸프戰이기 때문에 戰後復舊의 상당부분은 美國의 몫이 될 것이 明確하며 中東의 貧富國間에 差를 해소하여 安定을 찾으려면 中東版 國際開發銀行設立이 있을 것이며 이때도 우리가 과거와 같은 中東持需를 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經營環境은 先進國經濟의 沈滯에 따른 國際貿易量의 伸張鈍化가 예상되며 우리가 期待를 걸고 있는 日本 「엔」貨의 強勢 역시 종전후 美國의

國際經濟의 發言權의 擴大 등으로 어떤 方向으로 조련될 것인가 未知數 狀態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各種 不確實性의 變化方向을 끝까지 注視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豫想했던 變化와 正反對 變化가 共存하는 時代임을 감안하여 經營計劃의 「시나리오」別 對應策이 필요한 時點이라고 생각된다.

## 2. 밝지 않은 投資與件

눈을 國內로 돌려본다면 걸프戰의 여파는 國內 民間消費가 心理的으로 크게 萎縮될 것이며 이것을 어느정도 만회해 줄 수 있는 것은 財政中에서 福祉費用의 移轉支出과 選舉에 따른 一部 消費增加가 예상되기는 하나 政治 「코스트」를 줄여야 한다는 命題가 있는 이상 選舉過熱로 인한 消費增加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期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住宅投資의 경우는 綜合土地稅制, 非業務用不動產에 대한 判定強化 등으로 조세과벽을 위한 建設景氣가 어느정도 이어질 것이나 國內油價의 上昇에 따른 所得負擔의 移轉 등으로 下半期에는 地方을 시작으로하여 冷却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輸出需要의 不振과 더불어 內需 역시 萎縮될 可能性이 있으며 이것은 「걸프」

戰의 기간의 長短에 따라서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91年度の 企業施設投資의 決定要因 中 販賣展望要因은 內外的으로 不確實한 요인이 많은 가운데 需要不振으로 企業投資心理가 弱化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需要側面에서 投資擴大를 기할 수 있는 분야는 新製品 및 製品 차별화정책 등 供給側에서 이의 解決方案을 모색하여 수요를 創出하는 戰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급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우리나라의 設備稼働率이 '90年 11月 現在 80.7%, 1月~11月까지 79.6%로서 거의 생산능력한계에 이른 完全稼働水準에 와 있으며 이것이 中東戰으로 수요가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不確實성이 어느날 갑자기 제거되었을때 供給不足現像으로 발전될 素地가 있으므로 시설능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할 시점이나 각종 「코스트」의 上昇壓力으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임금수준과 人力難에 문제가 있다. 사실 그동안 임금상승은 不均衡의 제정이라는 차원에서 임금 「코스트」가 급상승되었으나 최근에는 建設에로의 製造業人力流出 등으로 勞動側要因에 의하여 施設効率が 低下되고 있으며 이는 制度가 勤勞時間短縮과 勤勞意慾의 저하에도 그 원인이 있다.

다음으로는 높은 資本의 使用者費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선 大企業의 경우는 與信管理制度 등의 官治金融으로 인한 實勢金利의 '89年, '90年の 계속적인 상승과 '91年에도 이의 지속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資本調達 코스트는 19%전후의 高金利가 예상된다. 그러나 内部留保資金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90年度の 利益이 전년보다 30%이상의 減益傾向을 보이고 있고 減價償却의 短縮도 별로 없고 다만 法人稅輕減이 금년부터 시행될 것이나 기타 토지 등에서 稅金重課와 新稅目 등의 新設로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使用者費用의 高水準下에서 利益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資本調達 코스트 못지 않게 資金의 確保自體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금년에도 證券市場을 통한 資本調達が 證市沈滯로 여의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銀行貸出 역시 租稅의 過多還取 및 支出規模의 增大로 民間與信의 폭이 그렇게 크지 못할 것이며 증대하고 있는 「코스트」 압력에 의한 物價上昇을 통화로 조절하려는 당국의 行態로 보아 크게 기대할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海外借入許用의 확대를 통해서 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이 역시 通貨와 關係 때문에 극히 제한되게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産業銀行 등을 통한 施設資金供給은 產全債를 통화 調達方式을 택할 경우 市中 金利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동안의 社會間接資本의 先行投資의 부족으로 交通滯增 등 과다한 物流 「코스트」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 역시 産業界의 蹉跎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投資決定과는 直接的인 관계는 없으나 努賃의 急上昇 後發開途國의 追擊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접목된 高附加價値의 商品開發이 있어야 하나 그동안 供與해 오던 先進國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國內開發 역시 研究人力의 부족과 高金利로 인한 研究投資의 어려움 등으로 技術開發 與件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제 막 시작한 研究開發이 5~10年以上 時間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3. 「시나리오」別 投資計劃

이상에서 볼 때 投資 특히 企業施設 投資與件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巨視指標을 보면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있다. 참고로 全經聯에서 작년 11월에 簡易로 調査한 投資實績 및 計劃을 본다면 우선 '90年の 投資執行의 경우 政府統計인 機械類輸入增加率은 43.8%(1月~11月平均) 및

國內機械受注增加率は 높게 나타나 있으나 實查資料는 製造業이 6.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統計의 차이로 볼 수도 있으나 크게 다르기 때문에 판단에 혼돈을 가져오고 있으며 오히려 '90年 下半期の 資金難 등을 감안할 때 그렇게 높게 날지가 의문시 된다. 또한 全經聯의 調査에 의하면 '91年度의 投資擴大要因중 前年에 연기되었던 투자의 집행을 위해서 '91年度 투자를 확대했다는 답이 32.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부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投資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1年の 投資計劃의 增加率は 製造業基準으로 13.9%를 보이고 있어 약간 늘어날 것으로 답하고 있으나 이 調査가 지난해에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걸프」戰 이후는 오히려 縮小方向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걸프」戰이 2개월이내에 끝이 나고 油價 등이 安定化方向으로 간다면 위축되었던 消費心理가 회복될 것이며 이것은 需要急増으로 나타

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最惡의 「시나리오」에 따른 投資計劃의 설정은 물론 最善의 「시나리오」도 같이 마련하여 투자계획을 설정하는 非常計劃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資金調達計劃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당국에서도 말만 그럴듯한 製造業主導의 성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에서 열거한 투자확대의 피해요인들을 하나 하나 확실히 改善해 나가는 성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각 經濟部處 상호간에 같은 방향에서 政策推進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각종 政策變數의 적기운용과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통하여 기업이 自己判斷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風토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國際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政府 「서비스」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적정선이 필요하며 政府 「서비스」의 過供給으로 經濟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